대한전선(주)

이라크에서 약 1500만불 규모 전력케이블 수주

대한전선(대표: 兪彩濬)이 최근 이라크 전력청에서 실시한 132kV XLPE 초고압 전력케이블 200km 국제입찰에서 유럽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을 제치고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케이블은 금년 안에 전량 발주처에 인도될 예정으로 이번 대한전선이 수주한 물량은 '90년대 초반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한국업체에 발주한 인프라부문 프로젝트 중 사실상 최초의 대형물량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이라크의 석유 수출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되었던 석유, 전력, 통신 등 핵심 산업부문의 개보수, 인프라 복구 사업용 설비의 구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지난 2월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실시한 초고압 지중케이블 턴키 프로젝트에도 참가하여 15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한편 대한전선과 대우통신, 대성전선, 동양전선 등 4개사는 파워콤이 발주한 5백억원 규모의 광케이블을 공동수주했다. 파워콤측에서는 "이번 입찰은 지역별 단가계약으로 각 지역별로 수요 발생시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납품하는 방식으로 물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서울 경기권, 대우통신은 영남권, 대성전선은 충청 강원권, 동양전선은 호남 제주 남서울권의 공급권을 각각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설립된 한전의 정보통신 자회사 파워콤의 설비확충에 따른 것으로 파워콤은 지난달 초부터 응찰업체와 약 3주간 가격협상을 벌여 이들 4사를 최종 낙찰사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1차 입찰에서는 파워콤이 예정가를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제시해 유찰됐었다. 한편 입찰에는 이들 4사 외에 극동, 진로전선, 삼성전자, LG전선, 일진산업 등 희성전선을 제외한 국내 광케이블 생산업체 9개사가 참여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국제회의인 제15회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가 지난 4월 1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崔洙秉)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姜昌淳)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차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중국·일본 등 세계 12개국의 원자력계 고위 인사와 전문가 5백여명이 참석했다.

최수병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자력은 2010년말 총 24기에 2252만 9천kW로 확충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한층 강화된 대용량의 차세대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는 완료한 단계로 2010년경 그 첫 호기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회 첫날인 19일에는 김달중 세종연구소 소장의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원자력정책과 전망」을 시작으로 닐스 디아즈(Nils J. Diaz)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의 「원자력 안전성과 비용」, 리종리앙(李忠良)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부총경리의 「중국의 장기 원자력산업 진행계획」, 타바타 요네호(田畑米穗)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의 「일본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현황과 전망」 등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원자력 에너지 : 지속적인 성장과 풍요로운 새 천년으로 가는 패스워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새 천년에서의 원자력의 위상과 역할」 「원자로 기술 개발 및 합리적 건설」 「원자력의 신뢰도와 안전성 향상」 「원

자력시설 제염 및 해체」「신개념의 원자력」「원전의 운전성능 향상」「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등 7개 기술 세션에서 국내 35편, 국외 35편 등 총 7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조직개편 단행
국제협력팀·품질인증원 신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은 최근 국제협력팀과 품질인증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기조합은 회원사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지원부 산하에 국제협력팀을 신설하고 ISO 인증 업무를 수행할 품질인증원도 새로 만들었다.

품질인증은 신설된 ISO 인증팀과 함께 기존 경영지원부에 있던 품질 경영팀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조합의 조직개편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조합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국의 최신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ISO 인증업무를 조합에서 처리, 회원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개편으로 조합은 경영지원부(총무팀, 경리팀, 국제협력팀)와 사업부(사업1팀, 사업2팀, 부산사무소, 대전사무소) 품질인증원(ISO인증팀, 품질경영팀)의 조직으로 운영하게 된다.

LG전선(주)

Network 사업 分社

LG전선(대표: 권문구 www.lgcable.co.kr)의 Network 사업부가 인터넷·정보통신 전문 벤처로 새롭게 태어난다.

LG전선은 벤처성격의 대표적 '자율경영팀'이었던 Network 사업부를 4월 1일부로 별도법인으로 설립하고 이미 모든 분사 절차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현재 직원은 총 45명으로 임직원들이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종업원 지주제 형태로 운영되며 LG전선 Netwok 사업부장이었던 이주석 상무보가 사장을 맡게 됐다.

'Community'와 'Network'을 의미하는 회사이름 'RingNet'은 LG전선 권문구 부회장이 직접 작명한 것으로 알려져 또한 화제다.

새로 설립되는 '링네트'(RingNet Ltd.)는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LAN망 구축사업 등 기존사업 외에 '인터넷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본격적인 인터넷·정보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인터넷 사업(컨텐츠 사업), 보안소프트웨어 개발·판매사업(모니터링 시스템), 교육사업(통신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교육) 등의 신규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올해는 작년 대비 30% 늘어난 500억의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작년 매출액 385억).

특히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와 Telco.(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사업과 네트워크 망·장비 관리사업은 미국에서도 성장성 있는 틈새시장(Niche Market)으로 각광받고 있어 RingNet의 향후 사업 전개와 성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분사과정을 이끈 RingNet의 이주석 대표이사는 "회사 내에 두기보다는 독립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과감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분사제도는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터넷 기업문화를 창조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보국전기공업(주)

대구월드컵 경기장 800kW
비상발전기 2대 수주

발전기 전문제작업체인 보국전기(대표 곽종보)가 최근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 사용될 비상용 발전기 2대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기는 800kW급

병렬식 대용량 비상용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금액으로는 11억원대에 이른다.

보국전기 곽기영 부사장은 "앞으로 전국 월드컵 경기장 공사가 진행중인 지자체에서 발전기 발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월드컵 경기장은 역사적 상징성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니 만큼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보국전기는 지난 해 신공항 활주로에 사용될 비상용 발전기 8대를 납품하는 등 대형 첨단설비에 발전기를 꾸준히 납품해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이미 인정받았다.

한편 현재 전국 10곳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 공정률이 40%를 상회하면서 발전기, 수배전반 등 전기기자재의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창립 40주년 맞아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가 지난 4월 4일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960년 4월 4일 상공부로부터 대한전기공사협회로 사단법인허가를 받았다.

또 1963년 2월 26일 전기공사업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협회는 사단법인체이던 조직을 법정단체로 재탄생시켰으며, 현재 중앙회를 비롯 전국 19개지회를 두고 1만여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합리화에 앞장서는 전기공사 정책지원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4월 3일 대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이날 김창준 회장은 "지난 40년간 협회발전과 터전을 닦아온 선배전기인들과 사무국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10여년 동안 못다 이룬 전기공사기술연구소 설립 등 업계현안을 취임 2년만에 달성한 것은 협회 임원진이 온 힘을 기울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40주년을 맞아 협회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현대중공업(주)

현대중공업, 현대정보기술, 오라클 세계 최대의 중공업 B2B 마켓플레이스 전략 제휴

세계 최대의 造船회사와 전산장비업체, 첨단소프트웨어업체가 손잡고 중공업 분야 최초의 기업과 기업간 사이버 상거래시장을 설립한다.

현대중공업(대표: 趙忠彙)과 현대정보기술(대표: 表三洙), 그리고 오라클(Oracle)(대표: 강병제)은 세계 최초·최대의 중공업 B2B 마켓플레이스(Business 2 Business Marketplace/기업과 기업간 사이버시장)인 가칭 「HeavyIndustryXchange」를 설립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고 지난 4월 6일 발표했다.

이들 3社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오라클社 e-Business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중공업 B2B 마켓플레이스인 가칭 「Heavy Industry Xchange.com」을 6월까지 설립하고 7월부터 전세계 중공업계에 다양한 B2B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00년 2천억원, 2002년에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명실 공히 세계 최대의 중공업 마켓플레이스 회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설립 초기단계에는 현대중공업의 6천여개 국내외 부품 협력사와 국내 제휴사인 三湖重工業, 現代尾浦造船을 참여시키고, 점진적으로 일본, 유럽의 중공업 전문기업들은 물론,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중공업 산업의 세계적인 닷컴(.com) 회사로 육성시킬 예정이다.

造船과 엔진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e-business 적용범위를 自社의 구매조달 프로세스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구매비용을 획기

적으로 절감하고 자재조달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제품 생산주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중공업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인터넷 통합(I.I) 전문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현대정보기술 역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B2B 마켓플레이스시장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국내외 B2B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e-business 솔루션 공급업체인 오라클은 이미 발표된 자동차산업의 B2B 마켓플레이스인 Auto Xchange(포드, GM, 다임러크라이슬러)에 이어 이번에 HeavyIndustry Xchange를 출범시킴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 최대의 e-business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한국중공업(주)

영흥 강관철탑 하중시험 성공

한국중공업(사장 尹永錫)이 송전용 대형 강관철탑의 하중시험에 성공, 일반 앵글철탑에 이어 강관철탑 전문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중은 최근 조치원 철탑시험장에서 강관철탑 31곳에 강철선을 연결한 후, 수직수평 방향으로 약 30톤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철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하중시험을 단 한차례만에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하중시험에 성공한 강관철탑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강관으로 제작된 철구조물로 중량 94톤, 높이 100m로 최대 지름 66cm의 대구경 파이프로 제작됐으며 기존 앵글철탑에 비해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다.

지난 '99년 영흥 T/L 송전용 강관철탑 30기를 수주한 한중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신시흥 변전소까지 64km 구간에 2001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강관철탑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한중은 지난 '98년 강관철탑 사업에 진출, 해외 기술도입 및 외부기술 인력 채용, 대형 설비의 추가투자 없이 그 동안 발전소와 플랜트의 설계, 제작, 품질분야의 기술과 경험만으로 강관철탑의 100% 기술자립을 달성했다.

한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강관철탑 하중시험 성공으로 한중은 발전소 기자재의 설계와 제작, 건설에 이어 송배전까지 일괄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약 5천억원 규모의 국내 765kV 강관철탑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송배전 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은 최근 첫 여성과장을 배출시킨데 이어 30일, 기능직 사원 진급 심사에서 발전기 공장에 근무하는 류의현(柳義鉉) 직장을 관리직 직급인 차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그 동안 한중에는 18명의 사원이 현장직 신분을 유지한 채 생산과장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직계전환(기술직을 → 관리직)과 함께 차장 진급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의현 차장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81년 한중에 입사해 발전기 조립 한 분야에서만 종사해왔으며, 입사 초기 서해화력에서부터 최근의 영광원자력 6호기 및 미국 GE사에 공급되는 발전기 등 50여 기의 발전기를 제작한 이 분야 최고의 베테랑이다.

류 차장은 지난 '96년 9월 발전기공장 생산과장에 보임된 이래 현장관리를 맡으며 탁월한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왔다.

한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발탁인사의 문호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장장이나 임원으로의 승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산전(주)

고객밀착 마케팅 본격 실시

LG산전(대표: 孫基洛 부회장)은 최근 각 사업부별로 해당 제품

들에 대한 무상서비스 및 기술자문을 계획·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고객밀착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력기기사업부는 지난 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자사의 전력기기 제품(몰드변압기, 배전반, 고압차단기)을 대상으로 무상순회점검 서비스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력기기사업부의 무상 순회점검 서비스는 IMF 이후 기업들이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기존 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한다는 점에 착안,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0여 업체에 설치된 1,000대 가량의 전력기기 제품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화사업부는 이 달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대구, 창원, 경인지역을 순회하며 PLC, 인버터 신제품 소개와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구사업부는 지난 3월 초부터 오는 6월말까지 전국 희망농협의 신청을 받아 예취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군데 농협에서 실시한 무상점검 서비스에서는 농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LG산전은 외국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산업용 전기·전자분야 국내 시장에서 자사의 경쟁우위 요소인 고객서비스를 적극 활용, 국내시장 수위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아래 향후 고객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국산전력기자재 수출 '총력'
해외전시회·상담회 주선 등

한국전기공업진흥회(회장 유재환)가 국내 전기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해외 전기전문전시회 참가 및 수출촉진단 파견, 아프리카 전력기자재시장동향 파악 등 '국산전력기자재 수출촉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진흥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ASIAN ELENEX 2000' 전시회와 싱가폴에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ENEX ASIA' 전시회에 대규모의 국내 전력기자재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EP VIETNAM' 전시회에도 참가, 국산 전력기자재의 우수성과 품질을 널리 홍보키로 했다.

해외수출촉진단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동경과 오사카지역 방문을 비롯하여 7월경 중국을 방문, 전력청 구매담당자들과 수출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남아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3개국의 전력시장 현황과 시장동향 조사사업을 실시,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전력기자재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수출촉진사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전시장 임차료, 통역비, 홍보비 등을 참가업체에 지원한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전기연구소(경기도 의왕소재) 전기시험연구센터 강의실에서 '공인인증시험 면제업체 품질관리교육'을 지난 4월 27·28일 양일간 실시했다.

품질관리 교육은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퓨즈, 변성기, 보호계전기, 피뢰기, 케이블종단접속재를 생산하는 54개사의 공인인증시험 면제업체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박병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기술진흥팀장) ▲사용전 검사제도의 전기안전의 중요성 또는 전기안전사고 사례(정해권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부장) ▲국내 중전기기 품질현황 및 시험설비 확보계획(박병락 전기시험연구센터장) ▲변압기(기타품목) 시험방법 이론 및 현장교육 등이 실시되었다.